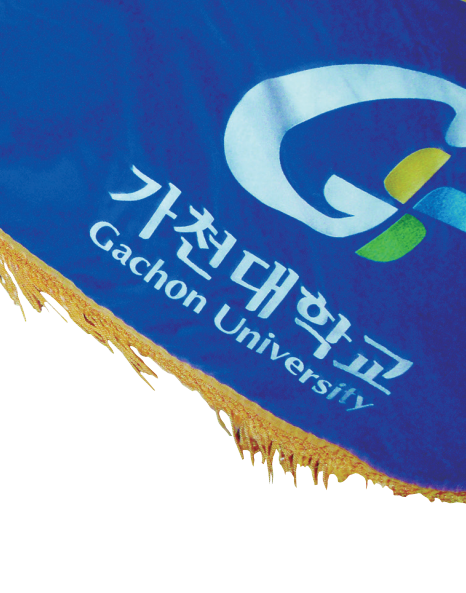




의료·교육·문화·봉사·언론...

끝임 없는 도전으로 21세기의 길을 열다



4

5

▶ 이길여 총장의 회고록 '길을 묻다'.



이름 앞에 항상 '최초'가 붙는 인생

일제 강점기, 중농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나 6·25 전쟁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이후 미국 유학 후 한국 최초 여의사 의료법인 설립,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수도권 4위 규모인 '가천대학교' 설립, 의료·교육·문화·봉사·언론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공익재단인 '가천길재단' 설립. 모두 이길여 총장이 한 세기 동안 이룬 이력이다.

그는 이 시대의 특별한 현역이다. 그가 일제 강점기(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초등학교를 일본어책으로 배운 세대로서, 매우 희귀한(?) 현역 대학 총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상은 구닥다리가 아니다. 그는 대학의 미래, 급변하는 인공지능 세상, 나아가 21세기 문명에 대해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발신(發信)한다.

무슨 저력으로 그렇게 발신하는가? 이름 앞에 항상 '최초'가 붙는 그의 인생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여성 의사이자 다음 세대에게도 존경받는 교육자, 한 세기에 걸친 한반도의 역사가 투영된 그의 삶을 김충식 교수(남산의 부장들) 저자와의 2년간에 걸친 대담을 이 책에 담았다.

영화 '국제시장'의 이길여 버전

일본어만 써야 했던 초등학교 시절, 이길여는 무심코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뺨을 맞는다. 그것도 같은 조선인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에는 일본군 '정신대' 징발로 온 동네에 난리가 난다. 딸이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흔 바람이 불었다. 이길여의 나이가 서너 살만 많았다면 기혼자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길병원 설립자 이길여, 가천대 원 설립자 이길여, 가천대 학장 이길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해방이 되고 이리여중에 입학했을 때 좌우익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어느 날은 좌익 선배 언니의 강권으로, 또 어느 날은 우익 언니의 손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나선다. 전쟁이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 '길을 묻다' 출간

김충식 교수와의 2년간에 걸친 대담 담아
한반도 역사 투영된 삶 속에 꽃 피운 통찰

“간절히 바라고 뜨겁게 도전하면 운도 내 편
제 성공 비결 중 하나가 ‘활짝’ 잘 웃는 것”

터진 뒤,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학도병으로 나간 또래 학생들, 서울대 의대 동기 남학생들이 전쟁터로부터 영영 돌아오지 않아 가슴이 아팠다. 전쟁 중에, 부산에 생긴 연합대학에 다녔다. 피난 의대이다.

이길여는 영도다리를 지나 범일동 ‘하조방’ 자취집을 오가며 학교를 다녔다. 세 명이 비좁은 방에 누워 잘 수 없어 돌아가며 한 명은 앉아서 공부를 해야 했다. 서울로 한도했을 때 쫓겨 온 잉크병에 입김을 호호 불어 가며 공부를 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매듭지어진 후 영국 등에서 온 웨이커 의료 봉사단과 함께 군산 도립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했고, 인천 용동 우물가에서 ‘이길여 산부인과’를 열었다. 선진 의료를 배우고 싶어 미치도록 미국에 가고 싶어 1964년 미국에 갔다.

그의 삶과 증언은 귀중한 '기록 유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일제 강점기, 해방과 분단, 6·25 전쟁과 휴전, 전후의 폐허와 가난 등 시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현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관통해온 그의 삶과 증언은 귀중한 '기록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의 모범생이었기는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딱딱한 일입니다. (초등학교)급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도 저는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열창했습니다. 아이들이 납작 엎드려도록 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대담자 김충식 교수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이길여 총장의 삶의 궤적과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교차 비교하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애초부터 “이길여 총장의 삶의 궤적을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길여 총장의 ‘응답’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서부터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기인 오늘까지를 ‘소환’해 낸다.



이길여 총장은

일제 강점기에 전북 군산의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과정을 일보어 교과서로 마쳐야 했다. 1945년 해방 후 이리여고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뉴욕의 메리 아머클리트 병원과 퀸스 종합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일본 니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8년 ‘이길여 산부인과’를 개원했고 1978년 국내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의료보험제도가 없던 시절 ‘보증금 없는 병원’을 써 붙이는 등 병원 문턱을 낮추고 무의촌과 낙도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에 앞장섰다. 인재 양성을 위해 1998년 가천의과학대학교를 설립했으며, 경원대학교를 인수했다. 2012년에는 4개 대학을 통합해 학생 수 기준으로 수도권 4위 규모인 ‘가천대학교’를 출범시켰다.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가천의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미추홀봉사단, 경원일보에 이르기까지, 의료·교육·문화·봉사·언론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공익재단인 ‘가천길재단’을 이끌고 있다.

6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1978년 이길여 총장은 국내 여성의로로서는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맥락이 숨어 있을까. 이에 대해 이길여 총장은 “의료 법인이 아니면 ‘병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고 한 단계 낮은 ‘의원(醫院)’이라는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의료 법인 설립을 기피했던 이유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1968년 이길여 총장은 미국에 남으라는 주변의 강력한 만류를 물리치고 귀국을 결단한다. 가난한 한국보다, 더 가난한 조국의 환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의 귀국을 미국 동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길여 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를 팔처럼 아꼈던 퀸스병원 병리와 주임과장) 설리번 박사도 눈시울을 붉혔고요. 그분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했는지도 몰라요. 저의 귀국은 그분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봉사와 경영을 했을 뿐

시인 서정주가 ‘자화상’에서 설파한 것처럼 사람은 ‘업고’, ‘업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 세대는 이길여 총장으로부터 무엇을 ‘업’ 수 있을까. 우선 ‘애국심’이 가장 쉽게 읽힌다. ‘애국’은 이길여 총장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는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이고, 정신적 모토였습니다. 애국은 6·25 때 남학생 학우들 학도병 출전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후로 다짐했던 것이었지요.”

“무료 검진이 본업은 아니었고, 여력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 것이지요. 외딴 섬마을 무료 진료를 하다가 양평, 철원 같은 취약지역 병원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러한 환자 사람은 나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길병원 역사의 자랑이라고 생

각합니다. 사실 저는 공익 경영이니 윤리 경영이니 하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다만 사랑으로 경영했을 뿐이에요. 무당벌레 버스 같은 것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단 탄핵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이길여 총장으로부터 ‘통찰’을 읽을 수도 있다. 가령 그는 일본의 국력과 기세가 무섭게 뻗어 나가던 1970년대 수도 도쿄에서 일본의 단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특성인데요, 너무 폐쇄적이었습니다. 학술 콘퍼런스에서 느낀 것인데 일본 학생들의 수준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하네요. 그런데 원어로 하지 않고 전부 일본어로만 하는 거예요.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학도 세계를 향해 열리는 것이 아닌, 일본식 의학 같았어요.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길여 총장만의 성공 노하우와 카리스마

“제가 그래서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면 운도 자기 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잡을 잊고 노력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저의 성공 비결 중의 하나가 잘 웃는 거였습니다. 웃음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면 다 드러나요.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활짝 웃으며 다가가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가 그랬고, 의료 또는 교육 관계자,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느꼈더라고요.”

글=김대성 기자, 사진=가천대 제공

1. 개원 무렵의 길병원(현 동인천길병원). 1970년대 일본 유학을 통해 종합 병원 설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2. 무료 자궁암검진. 무료 자궁암 검진을 받기 위해 길병원에 줄을 선 여성들. 3. 자성의원 시절, 고향 어른들을 인천의 병원으로 모셔 무료 진료를 했다. 4. 환자들에게 침판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 이길여 총장은 ‘분필 든 의사’로 불리기도 했다. 5. 2012년 가천대 통합출범식. 6. ‘지성학’ 강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7. 다음 바쳐 진료하자는 정신을 담아 가천의대 졸업생들에게 해마다 청진기를 목에 걸어 준다.

